

여성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

조 혜 자[†] 방 희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 고정관념이 여성의 자아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들과 낮은 여성들의 자아해석 양상을 명시적인 검사와 암묵적인 검사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명시적인 검사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들보다 더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며, 특히 역할, 행동, 성격, 외모 영역들과 처방적인 내용에서 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성 고정관념의 고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가장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 자아해석의 영역은 외모로 나타났다. 명시적 검사와는 달리 암묵적 연합검사(IAT)에서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없이 성 고정관념이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성 고정관념 저집단은 전반적으로 반응시간의 변산이 고집단보다 컸고,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조건에서 반응 오류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의 내용에 따라 자아를 연결시키는 양상이 여성들의 고정관념화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런 현상이 암묵적 수준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어 : 자아해석, 성 고정관념, 암묵적 연합검사(IAT), 동일시, 탈동일시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2-74-HM1016).

이 연구를 도와준 이화여대 여성심리 연구팀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조혜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hycjacho@ewha.ac.kr

서 론

자아와 성별

자아란 개인이 갖는 자기 동일적이며 타인과는 독립적인 독특한 성질로 정의되지만, 자아의 사회적 성질도 강조되어 왔다. 자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성물로서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신이 소속된 범주에 대해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반영한다. 따라서 제임스와 쿨리, 미드 이래로, 많은 자아심리학자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자아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아를 사회와 개인 자신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았다.

개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라나면서 자신이 속한 범주를 알아차리고, 사회나 문화, 타인이 자신이 속한 범주에 기대하는 바에 맞추어 행동해 나간다.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범주화하는 이유는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이다(Macrae & Bodenhausen, 2001). 개인은 다양한 범주들로 범주화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현저한 범주특성이 자기 정의의 기초가 되고, 자아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되고 있다. 여러 범주들 중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인간 범주는 성별과 인종, 연령이고, 그 중에서도 성별은 시각적일 뿐 아니라 이분법적이고 상호 배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자아에 중심이 된다(Deaux & LaFrance, 1998). 성별은 이렇게 다른 범주들보다 강력하게 눈에 띄는 것 뿐 아니라, 성별에 부착된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의미는 보편적이고 만연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인생초기부터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성별은 다른 범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범주가 되고, 사회적응의 기

본기제로 자신의 성별이 의미하는 바에 자신을 맞추어 가게 된다.

성 고정관념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

유아초기부터 아기들은 성별을 구별하고 부착된 의미를 배워가면서 성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게 된다. 특히 고정관념은 기술적인(descriptive) 내용과 더불어 처방적인(prescriptive)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Fiske, 1993) 개인의 자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 고정관념은 그 집단 대부분의 구성원의 행동과 능력, 선호도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이미지에 맞추어야 하는 압력을 받는 것으로, 마음속의 기준(anchor)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처방적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작동하는 울타리(fence)로 작용하여 사회적 통제의 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아이를 보살펴야한다”는 고정관념은 처방적인 내용으로서, 이를 어길 때 사회적으로 비난당하게 된다. 처방적인 성 고정관념의 내용은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역할과 행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성의 자아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존하여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는 대상인물로 하여금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대상인물은 기대를 확인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대상인물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기충족적 예언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정관념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범주화를 채택할 때, 집단내 유사성과 집단간 차이를 강조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현저한 사회적 범주 틀에 집어넣고 범주화할 때 자신이 속한 범주 집단에 맞도록 고정화(stereotyping)하고, 이러한 고정화는 자기와 내집단과의 유사성을 높여 집단 정체감을 더 강하게 하는 반면, 외집단과는 더 강한 대비를 만든다는 것이다(Turner & Oronato, 1999).

한편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 Turner, 1986)에서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대우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자신의 성취나 어떤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가지기 위해 자기 집단을 옹호하고 타집단을 나쁘게 평가하며 고정관념을 적용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고정관념을 적용하는 이유는 자존감 유지를 위한 것이고, 따라서 긍정적인 차원에서만 내집단 선호를 보이고,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낮은 지위 집단은 오히려 외집단 선호를 보인다고 가정한다(Nelson, 2002). 그러나 이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연구들은 내집단을 선호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아지지 않으며(예. Chin, 1995), 외집단을 폄하하더라도 자아 존중감을 높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예. Branscombe & Wann, 1994). 또한 낮은 지위의 구성원들도 자기 집단의 독특성이나 긍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만회하려 할 뿐 아니라(Spears, Doosje, & Ellemers, 1997),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집단보다는 낮은 지위의 집단에 더 자신을 동일시하려 함이 밝혀지고 있다(Brewer & Brown, 1998).

다른 한편 최적 특수성 이론(ODT, Optimal

Distinctive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사회적 동일시를 하는 배후에는 두 가지 기본동기인 동화(assimilation)와 분화(differentiation)의 동기가 있다고 본다. 자기를 묘사할 때 집단 고정관념의 특성으로 묘사하는 자기-고정화(self-stereotyping)는 내집단과 자아를 밀착시키는 현상으로, 동화의 동기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또 한편 사람들은 독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사회집단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범주의 독특성이 분화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ODT 이론에서는 분화욕구가 집단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자기-고정화를 통해 내집단의 독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분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을 덜 강조하고 내집단 특성을 보다 자기-기술적인 특성으로 지각함으로써 집단 구성원들은 더 큰 독특성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분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Pickett, Bonner & Coleman, 2002).

그러나 여성이나 흑인과 같이 고정관념에서 불리한 집단은 동일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Nelson, 2002). 고-동일시인은 자신을 그들 집단과 더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라도 그러하며, 집단 위협을 대항할 집합적 방략을 추구한다. 저-동일시인은 자신을 집단과 분리시키며, 특히 집단 이미지가 부정적일 때 그러하다. 이들은 보다 개인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집단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감에 긍정적일 때에만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동일시의 정도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사회적 정체감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위협을 받을 때 위협받는 집단에 소속되어 동일시하는 것은 자존감 손상을 일으키므로, 자존감 보호를 위해 내집단을 탈동일시(disidentify)하게 된다. 이는 Lee와 Ottani(1995)의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중국인들에게 내집단 지각에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고정관념으로 위협했을 때, 내집단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부정적 위협에 대해서는 내집단 동질성이 높아지고 동일시도 높아졌지만, 내집단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고정관념 위협시에는 내집단 이질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내집단 동일시가 약화되었다.

또한 동일한 개인이라도 부정적인 고정관념 영역에서 자신을 탈동일시함으로써 자존감과 자아 유능감을 보존할 수도 있다. 여성들은 과학과 수학 영역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못해도 된다고 그 영역에서 자신을 탈동일시함으로써 실제 수행이 나빠짐이 밝혀졌다(Major & Schmader, 1998). 한편 사람들은 고정관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성 고정관념은 여러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주화를 하면서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알면 내집단 선호가 생기고 자동적인 긍정적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속한 집단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외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고 내집단에 대해서는 사례들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하므로 자아를 보호할 수도 있다(Perdue 등, 1990).

이와 같이 성 고정관념이 자아에 적용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한 동기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중재되며, 성 고정관념의 영역들은 자아와 관련하여 동일시될 수도 있고, 탈동일시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Deaux 와 Lewis(1983; 1984)는 성 고정관념의 구성요인으로 특성, 역할, 직업, 신체적 특징을 밝히고, 이들 특징들이 서로 연합된 동질적인 덩어리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특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즉 여성적

신체특성을 갖는 개인을 보면 그는 여성적 직업을 갖고, 여성적 역할과 행동을 할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Deaux와 LaFrance (1998)는 여기에 정서적 특성과 능력요인을 첨가시켰다. 그러나 한편 Eckes(1994)는 고정관념의 구성요인을 성격특성, 태도, 신념, 외현행동과 행동적 선호, 외모라고 밝히면서, 이들 요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성 고정관념이 자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단일차원 모형(uni-dimensional model)은 모든 성별관련 역할과 특성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지며, 성격과 태도 행동 등의 도식들이 연결되어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적용된다고 본다(Bem, 1981). 즉 여성적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들은 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성 고정관념의 요소들은 서로 추론적으로 연결되며, 남녀 범주의 변산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본다(Biernet & Kobrynowicz(1999). 예를 들어 사람들은 여성적 몸매특성을 가진 여성은 여성적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추론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성 유형화된 사람들은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로, 타인뿐 아니라 자신과 사물을 조직할 때에도 성별로 조직한다고 본다. 단일차원 모형이 맞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과 자아는 상관이 높을 것이며, 각 영역들 간에도 상관이 높을 것이다.

반면 Spence(1993)의 다차원 모형(multi-dimensional model)에서는 사람들은 확고한 성 정체감을 아동 초기에 발달시키고, 일생을 통해 그것은 자신의 자아상의 중심이 되지만, 강하고 분명한 성 정체감을 가졌더라도 자신의 성에 기대되는 모든 특

성, 흥미, 태도, 역할, 행동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개인은 그러한 특성들중 일부만을 나타내며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진 성 일치 특성을 사용하여 성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자아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의 다양한 내용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또한 성 고정관념과 성 행동, 성 정체성 등은 각기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입장에서는 성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그리고 성 고정관념의 각 영역 내용들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론이 맞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과 자아의 영역들은 서로 상관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고정관념의 자동성과 암묵적 검사

사회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의식적, 명시적, 의도적인 태도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면서, 태도와 행동간에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고정관념의 연구에서도 고정관념이 차별을 예언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정서가 개입된 측면)이 차별을 더 잘 예언한다고 주장되었다. 성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Deaux와 LaFrance(1998)는 이러한 이유를 사람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남녀의 차별대우, 여성의 능력부족 등에 대한 고정관념은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감추지만 여전히 보다 교묘하고 암묵적인 형태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Fazio(1986)도 기존의 태도측정이 태도의 암묵적 요소와 자동적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행동의 불일치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Greenwald와 Banaji(1995)는 이전에 설명해 내지 못했던 많은 심리적 현상들(특히 태도와 관

련된 현상)이 암묵적 인지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암묵적인 검사를 사용했을 때 피험자들은 자신을 바람직하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의식적으로 왜곡하는 자기-제시편향(self-presentation bias)을 보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Devine(1989)은 암묵적 실험을 통해 분리모형(Dissociation Model)을 제안하고, 문화적 고정관념과 개인적 신념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인종편견 고저-집단을 나누고,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점화시켰을 때,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자동적 활성화에는 편견 고저-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 의식적인 통제적 과정에서 고저-집단의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즉 편견 고저-집단 모두 자동적으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만, 저-편견집단은 그 효과를 금지하는 통제적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그는 분리모형을 주장한다. 즉 문화적 고정관념 지식은 아주 어려서부터 반복 학습하므로 누구나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반면, 개인적 신념은 이후에 습득하므로 의식적이고 통제적인 과정을 거쳐 저항효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결과가 Fazio등(198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의식적 금지가 저-편견인에게서 정교하게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점화자극을 제시한 후, 유사성 판단을 시켰을 때, 고-편견인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판단하지만, 저편견인은 시간이 더 걸렸고, 이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고정관념을 의식적으로 무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Lepore 등(1998)의 실험에서는 Devine 모델의 효과는 점화자극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즉 점화자극으로 고정관념 특성(예. 더러움, 무직, 범죄 등)들을 제시한 경우에는 자동적인 활성화에 편견 고저-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범주명(예. 흑인)을 제시했을 때

에는 자동적인 반응에서도 편견 고저-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은 그 이유가 고-편견인의 고정관념 연합망의 연결강도와 저-편견인의 연결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과정은 인상형성이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처리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암묵적 태도검사(IAT)의 개발로 명시적인 검사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Greenwald & Farnham, 2000; Greenwald, Banaji, Rudman, Farnham, Nosek & Mellott, 2002). IAT란 사회적 지식구조도 일반지식구조처럼 개념과 속성들이 연합강도를 가진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분법적인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류하게 하여, 어떤 식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IAT 고안은 고정관념과 자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있다. 연구자들은 명시적으로는 은폐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암묵적으로 드러나며, 고정관념과 자아는 인간의 심리구조 내에 통합적인 연결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서 Rudman과 동료들(2001)은 IAT를 사용하여, 여성들은 '따뜻함'에 강한 연합을 보이는 반면, 남성들은 '권력'에 강한 연합을 보이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과학과 수학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가 의식적인 측정결과에서는 크지 않지만 IAT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암묵적인 고정관념화는 충분히 자동적이 아닐지라도 자신을 편향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차별과 편견을 설명할 뿐 아니라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간에 고정관념이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할 때 연구자들은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성별차이를 밝히고자 해 왔다. 그러나 Hare-Mustin(1988)은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비교해온 심리학 연구들이 남녀차이를 강조하고 집단 내의 변량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알파 편향을 일으켜 왔다고 지적한다. 그녀의 주장처럼 모든 여성들이 공유하는 여성의 본질이나 본성,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내에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여성이 놓여있는 맥락과 지위, 역할, 경험, 경제조건, 문화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모든 여성을 동질적인 집단인 것처럼 남성집단과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성 고정관념이 여성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고 할 때의 문제는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을 사용하여 실험하거나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의 여성주의자들은 성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 간에 차이가 밝혀져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권리와 평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앞으로의 삶을 전통적인 여성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주의적 태도와 성 평등적 사고를 가진 여성들과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 간에는 자아구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을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성 평등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자아해석 양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1. 성 고정관념이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 검사

성별은 인생초기에 습득하는 범주이고, 그에 부착된 사회적 의미인 성 고정관념 역시 범주 개념과 함께 습득하며, 자기를 정의하는 기초로 사용하여, 자기-고정관념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성 고정관념이 자아에 적용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한 동기에 의해 중재되기 때문에, 여성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성 고정관념의 다양한 내용에 따라 자아해석 양상은 매우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1에서는 명시적 검사를 통해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여, 고정관념 고저집단을 나누고 그들의 자아해석 양식이 고정관념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영역별, 유형별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과 낮은 여성의 자아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성 고정관념이 자아해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무엇이며, 고정관념 고저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 (3) 처방적 고정관념과 기술적 고정관념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4)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집단 동일시 현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 법

기초조사

남녀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기술 형용사를 평정케 하였다. 형용사는 김영채(1984)의 400개 형용사 중에서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268개가 사용되었다. 각 형용사들은 여성적/남성적, 긍정/부정, 강/약, 활동적/비활동적 차원에서 각각 7점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되었다. 이 자료를 기초로 여성적, 남성적, 긍정, 부정적 값이 높은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여대생 113명에게 명시적인 성 고정관념 질문지를 실시하여, 상위 40퍼센타일과 하위 40퍼센타일에 속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상위 집단을 고정관념 고집단, 하위집단을 고정관념 저집단으로 할당하여 명시적 검사와 암묵적 검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중 두 검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은 고정관념 고집단 37명, 고정관념 저집단 35명, 총 72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측정도구와 절차

성 고정관념 질문지

Ashmore와 동료들(1987), Deaux & Lewis(1983), Fiske(1998)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성격, 역할, 능력, 행동, 외모의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성 고정관념 내용을 이론적 토대에 의해 선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성관련 형용사들을 삽입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형용사 선정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능력과 역할처방적, 기술적, 부정적, 긍정적 내용이 들어가도록 배합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6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문항은 총 34문항이었다.

여성의 자아해석 질문지

성 고정관념 질문지를 변형하여, 자아와 관련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아 질문지도 성격과 역할, 행동, 능력, 외모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처방적, 기술적, 부정적, 긍정적 내용이 들어갔으며,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아해석과 관련된 문항도 총 34문항이었다.

집단 동일시

김원형(1993)의 조직 몰입도 척도를 여성에게 맞게 수정한 김지경(2002)의 집단 동일시 문항 9개를 사용하였다.

절차

검사는 수업시간에 소집단으로 실시되었다. 검사는 자아해석이 성 고정관념 활성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자아해석 질문지에 답한 후 성 고정관념 질문지에 답하고 집단 동일시 검사에 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성 고정관념 점수를 산출하여 상위 40 퍼센타일과 하위 40 퍼센타일에 있는 여성들을 뽑아, 고정관념 고-저 집단으로 나누었고, 그들의 자아해석 점수를 비교하였다. 자아해석 양상의 점수는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표 1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해석 전체 차이와 영역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정관념 고 집단은 저 집단보다 더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고 있으며, 두 집단간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다. 영역별로 보았을 때에는 능력요인을 제외한 성격, 역할, 행동, 외

표 1. 자아해석, 집단동일시에 대한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

	자아해석		
	저집단	고집단	t 값
전체	3.72(.39)	4.29(.39)	-5.36***
성격	3.86(.63)	4.32(.45)	-3.55***
역할	3.21(.89)	4.43(.65)	-6.68***
행동	3.27(.64)	3.90(.70)	-4.28***
능력	3.92(.69)	3.88(.76)	.19
외모	4.37(.90)	4.93(.68)	-2.98**
집단 동일시	4.86(.65)	4.42(.55)	-3.07**

*** p < .0001 ** p < .001

모 영역들에서 고정관념 고 집단이 자아해석을 더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었고, 각 요인별로 두 집단간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왔다. 그러나 고정관념 고-저 집단이 여성집단에 동일시하는 정도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저 집단이 고 집단보다 동일시하는 현상이 유의미하게 컸다.

또한 여성들의 자아의 각 영역들이 서로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영역과 고-저집단간에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F_{(4, 280)} = 10.00, p < .0001$), 영역별 주효과가 있었다($F_{(4, 280)} = 44.57, p < .0001$). 즉 여성들은 영역에 따라 자아를 해석하는 양식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자아해석이 영역에 따라 달라졌다. 그림 1은 어떤 영역에서 여성들이 가장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고-저 집단 모두 가장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는 영역은 외모 영역이었고, 고정관념 고 집단은 역할, 성격에 대한 자아해석이 그 다음으로 고정형적이었으며, 고정관념 저 집단은 능력과 성격 영역의 자아해석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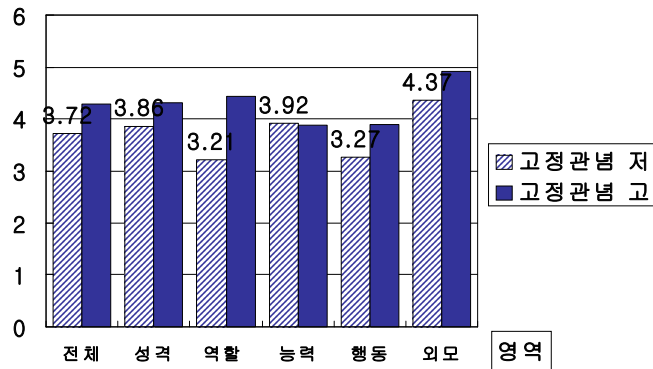


그림 1.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영역별 자아해석

과 행동 영역보다 더 고정형적이었다.

각 요인별 자아해석에 고정관념 고저수준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 회귀분석하여 조정된 R²을 내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자아해석은 고정관념 고-저수준이 26%를 설명하고 있었고, 이를 영역별로 보았을 때, 역할은 38%를, 행동은 20%, 성격은 14%, 외모는 10%를 설명하여, 역할 > 행동 > 성격 > 외모 영역의 순으로 자아해석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집단 동일시는 고정관념 고-저 수준 차이가 11%를 설명하고 있었다.

성 고정관념의 내용중 처방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이 자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처방문항과 기술문항을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표 2에서 보듯이 고-저집단 간의 자아해석의 차이가 처방문항에서만 나오고, 기술 문항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처방문항이나 기술문항에 대한 반응을 변량분석해 보았을 때, 문항과 고-저 집단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고(F_(1,70) = 16.17, p < .0001), 문항형태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_(1,70) = 28.39, p < .0001). 이는 성 고정관념 고 집단이 기술문항보다는 처방문항에 대해 더 고정형적으로 반응하고, 저 집단이 문항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고 집단은 자아해석이 더 처방적인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았고, 저 집단은 기술문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아의 처방적인 내용에 대해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차이가 설명하는 양은 34%에 이르렀다.

표 2. 처방문항과 기술문항에 대한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차이

	자아해석		
	저집단	고집단	t 값
처방문항	3.74(.68)	4.55(.43)	-5.99***
기술문항	3.71(.53)	3.94(.49)	-1.89

*** p < .0001

논 의

이상의 결과들을 몇 가지로 논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해석을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었고,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

들은 낮은 여성들보다 자신을 더욱 고정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자아에 반영됨을 강하게 입증한다. 사회가 가진 여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은 의식적으로는 어느정도 거부하더라도 자아에는 영향을 미쳐 자기-고정화(self-stereotyping)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통적 사고를 가지고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더 고정관념적 시선으로 자신을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고정관념 고 집단의 자아해석이 더 고정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는 성 고정관념과 자아가 연결되어 있으며, 성 도식화된 사람들은 타인은 물론 자신을 성별과 관련하여 규정한다고 지적한 S. Bem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에도 자아해석은 매우 고정형적이며, 특히 고정관념이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양식은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처방문향과 기술문향에 따라 고저 집단간에도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즉 자아와 고정관념의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느슨한 연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영역별로 나타나는 다양성은 Bem의 이론보다는 Spence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 같다.

둘째, 성 고정관념 고 집단과 저 집단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영역은 역할로서, 3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할은 사회가 규정해 준 여성들의 활동영역으로서, 여성의 여성적 특성을 가지게 한 근본원인일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Eagly는 남성성과 여성성 특성이 성격적인 특성이 아니라 남녀의 역할과 관련하여 결과된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Fiske(1998) 등 많은 여성학자들은 여성에게 할당된 역할이 여성의 낮은 지위와 무권력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즉 여성에게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은 여성의 낮은 지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부과하는 역할을 수용하고 그와 관련된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성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의 여성들은 그러한 역할을 거부할 뿐 아니라 순응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아의 여러 영역중 여성들이 가장 고정형적으로 자신을 기술하는 영역은 외모 영역이었다. 특히 고정관념 저 집단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지만, 고 집단보다는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고정형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해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모주의(lookism)의 영향을 개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강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자아에 반영함을 시사한다. Deaux와 Lewis(1984)는 성 고정관념의 영역중 신체특성 영역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Deaux와 Lewis의 연구결과와 연결시켜 본다면,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들 중 신체특성을 가장 중시하고, 이러한 외부의 고정관념적 시선은 여성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외모와 관련된 자아에 고정관념을 가장 많이 반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대상화(objectification)이론에서는 문화적 환경이 여성들의 외모를 대인관계에서의 화폐가치로 여기고 중시하기 때문에(티브리스, 1999),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민감할 뿐 아니라 거기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자기 검열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외모에 근거해서 평가되는 대상으로 다루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육체를 대상화시킬 때 통합된 자아의 부분으로 자신의 육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삼자의 시각, 즉 고정관념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게 된다

고 본다(Fredericson 등, 1999).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른 영역의 자아와는 달리 외모에 대해서 여성들이 고정형적으로 반응하고, 특히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의 여성조차도 자신의 외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은 대상화 이론의 관점을 지지한다. 외모를 자아의 통합된 부분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다른 영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고정관념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외모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자신의 외모를 대상화하며 자아의 통합된 부분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회의 처방적인 고정관념이 미혼의 여대생 집단 내에 “아름다움” 추구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여성들은 스스로 몸과 외모를 대상화시키며,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외모주의가 개인의 자아에 반영되어 실천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차이는 기술적인 내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처방적인 내용에서 크게 나타났다. 즉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들일수록 처방적인 고정관념의 내용으로 자아해석을 하는 경향이 더 컸다. 처방적이라 함은 사회 일반이 여성에게 강요하는 특성이며, 여성에게 사회가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이탈할 때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 기준을 이탈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Fiske(1993)는 처방적인 성 고정관념은 울타리(fence)처럼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고정관념-고 집단은 여성에게 사회가 부과하는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기술적 고정관념의 내용을 담은 자아해석은 고정관념 저집단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에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의 처방에 대한 저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자아에는 상당부분 처방적 내용이 반영되어, 기술적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고정관념 저 집단 역시 자신들이 저항하는 처방적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을 일부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집단 동일시는 고정관념 저 집단이 고 집단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을 어떤 집단에 동일시할 때,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자아에 반영한다고 보는 사회 정체성 이론과는 정 반대의 결과이다. 즉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은 더 고정형적인 여성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었지만, 여성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동일시하는 현상은 오히려 낮고,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 더 높았다. 즉 고정관념 고집단은 사회가 규정하는 고정관념을 스스로 실천하지만, 오히려 여성 집단의 지위나 권익은 중시하지 않으며 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즉 지배집단이 만든 고정관념을 실천하면서 여성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반면 고정관념 저집단은 사회가 처방하는 역할이나 고정관념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여성과 관련시켜 바라보지 않지만 여성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정체성이 다차원적이며, 따라서 사회정체성 이론으로 설명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Gurin & Markus, 1989)에서도 전통적인 여성들은 직업과 가족에 대한 여성 고정관념은 수용하면서도 여성임을 의식하지 않았고, 비전통적인 여성들은 여성 고정관념을 거부하면서도 여성임을 의식하고 있었다. Deaux와 LaFrance(1998)가 전통적인 여성들의 성별 중심은 여성주의 의식과 부정적으로 연결되지만, 비전통적인 여성들은 성별 중심이 여성주의 의식과 긍정적으로 연

결된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의 결과도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용한다는 것이 여성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동일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응의 한 양식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1의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자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자아에 반영되는 양상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고정관념의 영역에 따라 자신을 탈 동일시하기도 하고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명시적 검사를 통해 나타난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자아해석의 차이는 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실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동적인 자아해석 양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 성 고정관념은 매우 낮지만, 자아해석은 상당히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자아해석 반응이 상당히 고정형적이라는 것은 이 집단 역시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시사받는다. 또한 역할 영역에서 고저집단 차이가 많이 나타나며 처방적인 문항에서 고정관념 고 집단의 점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거부와 승인양상이 매우 다르며, 이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노력의 반영이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1에서 드러난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의식적 수준의 성 고정관념과 자아해석 양식의 차이가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2가 수행되었다.

연구 2.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본 여성자아에 미치는 성고정관념의 영향

연구 1의 명시적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여

성들이 자아해석을 성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은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보다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고정관념은 잘못된 신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식수준에서 검사를 하면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인의 실제 고정관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해 왔다. 고정관념은 인생초기부터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므로, 명시적 검사에서 고정관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라도, 암묵적 검사에서는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 1에서 나타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암묵적인 검사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성 고정관념은 암묵적 검사에서도 여성의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2에서는 Greenwald 등(2000, 2002)의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사용하였다. IAT란 이분법적인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류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수정하거나 은폐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고정관념이나 자아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연구 2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실험 1의 명시적 검사에서 나온 것처럼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자아해석의 차이가 암묵적 검사에서도 나타나는가?
- (2)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암묵적 자아해석에 차이가 있는가?
- (3) 명시적 검사와 암묵적 검사의 차이는 무엇을 반영하는가?

방 법

절차

연구 대상자

연구 1에 참가하였던 동일한 여대생 72명이 연구 2에 참가하였다. 이중 성 고정관념이 높고 집단이 37명, 성 고정관념이 낮은 저 집단이 35명이었다.

연구재료

암묵적 연합검사를 위해 두가지 유형의 범주명과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 선택되었다. 자아와 관련된 범주명으로 ‘나’-‘너’ 범주와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범주명으로 ‘여성특성’-‘남성특성’ 범주를 사용하였다. ‘나’와 관련된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나, 우리에게 조사를 붙여 10개의 ‘나’와 관련된 개념을 만들고, ‘너’와 관련하여 너, 너희에 조사를 붙여 10개의 개념을 만들었다. ‘여성특성’-‘남성특성’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로는 예비검사를 통해 평정한 여성특성과 남성특성 형용사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하였다.

- 나: 나, 나의, 내것, 우리, 우리들, 나를, 우리 것, 내가, 우리가, 우리를
- 너: 너, 너의, 네것, 너희, 너희들, 너를, 너희 것, 네가, 너희가, 너희를
- 여성특성: 아름다운, 상냥한, 따뜻한, 다정한, 세심한, 시샘하는, 까다로운, 속기쉬운, 수다스런, 속좁은
- 남성특성: 진취적인, 책임있는, 씩씩한, 적극적인, 힘있는, 난폭한, 잔인한, 음흉한, 허풍 떠는, 방탕한

명시적 검사에서 고정관념 고-저 집단으로 분류된 연구 대상자들에게 실험실에서 개인적으로 IAT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Greenwald의 방법을 따라 시행되었다. IAT는 5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서 피험자는 컴퓨터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자극이 두 개의 범주(나와 너,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키보드 상에서 왼쪽의 A키와 오른쪽의 S키를 가능한한 빠르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검사 2에서는 1단계에서 ‘나’범주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키를, ‘너’ 범주에 속하는 것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형용사가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에 속하는 것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나’거나 ‘여성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너’거나 ‘남성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4단계에서는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을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단계에서는 ‘나’거나 ‘남성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너’거나 ‘여성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실험은 도우미 학생들의 도움에 따라 진행되었다.

설계

고정관념 고-저 집단(2) X 성별특성 일치여부(2) 로서, 종속변인은 3단계(일치)와 5단계(불일치)의 반응시간과 오류율이었다.

결과 및 해석

전반적으로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와 남녀특성 판단에 걸린 반응시간이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2)과 자아-성별특성의 일치여부(2)를 변량분석해 보았을 때,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가 나타나($F_{(1,70)} = 4.25, p < .05$), 여성들은 나-여성특성/나-남성특성의 반응이 나-남성특성/나-여성특성 반응보다 빨랐다. 즉 여성들은 자신을 여성특성과 연합시키는 판단이 빠르고 남성특성과 연합시키는 반

응이 느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성 고정관념 고집단과 저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_{(1,70)} = .00, p > .05$),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_{(1,70)} = .11, p > .05$).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고정관념 고 집단의 변산이 저 집단보다 적었다.

그러나 반응의 오류율에서는 집단과 남녀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고($F_{(1,70)} = 4.71, p < .05$), 고-저집단간의 차이도 유의미했다($F_{(1,70)} = 6.39, p < .05$). 이는 고정관념 저 집단의 오류율이 높지만 특히 나-여성특성/나-남성특성에서 오류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표 3.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자아-성별특성에 대한 IAT 반응시간(ms)과 오류율

집단	자아-성별 일치	자아-성별 불일치	평균
고	866.99 (216.75) .05 (.05)	898.56 (247.66) .06 (.08)	882.77 .05
저	860.49 (257.98) .10 (.07)	903.88 (302.85) .08 (.09)	882.18 .09
평균	863.74 .07	901.22 .07	882.48 .07

()는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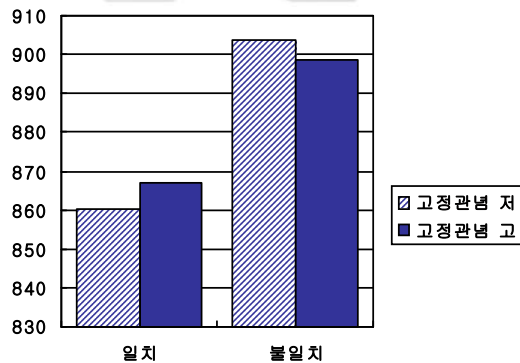


그림 2.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성별특성에 대한 IAT 반응시간

IAT의 자아검사와 명시적 자아해석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명시적 자아해석에서는 고정관념 고-저집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나, IAT 검사의 반응시간에서는 고정관념 고-저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아해석을 할 때, 명시적인 수준에서는 고정관념 저 집단이 성 고정관념을 억압할 수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억압하지 못하고 고정관념 고 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들은 자신을 고정형적인 여성특성과 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아와 여성특성을 연합시키는 과제에서는 빠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을 남성특성과 연합시키는 과제에서는 반응이 느려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이라도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자신을 고정형적인 여성특성과 연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암묵적 검사를 통해 고정관념 고저 집단 모두 암묵적으로는 비슷하게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암묵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암묵적 연구 결과들은 명시적인 검사들에서 은폐되거나 의식적인 수준에서 수정될 수 있는 태도의 측면을 드러낼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 Farnham, 2000; Aidman & Carroll, 2003). 특히 성 고정관념은 인지능력이 발달하기도 전부터 습득할 뿐 아니라 고정관념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나 관점이 발달되기도 전부터 과학습되고 습관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의식 이전부터 작동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반응시간만 본다면, 명시적 검사에서 성 고정관념이 낮고 자아를 고정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던 고정관념 저 집단의 여성들도 암묵적 수준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드러날 뿐 아니라 자아와 성 고정관념이 연합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 2의 결과를 연구 1의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Devine(1989)의 분리모형(Dissociation Model)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시적 검사에서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나왔지만 암묵적 검사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고저-집단 모두 자동적으로는 성 고정관념을 드러낼 뿐 아니라 고정형적인 여성특성과 자아를 연합시키지

만, 의식수준에서는 고집단은 고정관념 효과를 금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강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비해, 저집단은 고정관념 효과를 금지하는 통제적 과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 저 집단이 빠른 반응을 보였다고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들은 오류율이 많았으며, 특히 일치조건에서 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고정관념-저 집단의 변량이고 집단보다 컸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저 집단이 고 집단보다 개인차가 클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수준의 자아해석에 고정관념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논의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 성 고정관념이 여성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명시적 검사와 암묵적 검사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연구 1에서는 고정관념 저 집단은 고 집단에 비해 자신을 덜 고정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고, 고정관념 고 집단은 자기-고정관념화가 높았다. 그러나 연구 2의 암묵적 검사에서는 고정관념 저 집단의 성 고정관념이 고 집단과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자아에도 고정형적인 성별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명시적인 검사에서 나온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차이는 여성들의 내적인 자아표상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보다는 의식 수준에서 검토되고 수정된 형태의 반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적 처리와 통제적 처리를 구분하는 연구자들은(Neely, 1977; 이재호 외, 2001)

성 고정관념과 인종편견은 의식적 개입이 작용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후속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왔다. 본 연구의 결과도 표면적으로 보면, 성 고정관념은 자동적이고 암묵적으로 활성화되고 자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의 통제적 과정에서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에 차이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Devine의 분리모형을 지지하는 것 같다. 즉 성별은 가장 먼저 배우는 범주일 뿐 아니라 그에 부착된 의미인 성 고정관념 역시 어릴 때부터 학습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활성화될 뿐 아니라 자아를 고정관념과 연합시키지만, 이후에 학습된 여성주의 의식의 차이가 의식수준에서 성 고정관념의 금지나 강화를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 1의 의식 수준에서 고정관념의 금지와 확인 또는 강화의 현상이 역할과 처방적인 고정관념 내용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연구 1에서는 고정관념 고 집단은 사회가 부여한 여성역할과 처방적인 내용의 성 고정관념에 대해 자신을 그 내용과 관련시켜 보려고 하는 강화효과가 나타나는데 비해, 저 집단은 처방적 고정관념과 여성역할을 거부하는 금지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차이가 사회적 관례에의 순응과 거부로 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들은 사회가 규정한 여성의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처방적인 고정관념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데 비해, 성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들은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처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 검사에서도 고정관념 저 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비고정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영역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고정관념

을 적용하기도 했으며, 또한 암묵적 검사에서도 오류율이 고정관념 고 집단보다 높게 나온 것은 단순히 분리모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영역별로 보았을 때 외모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외모는 가시적이고 눈에 띄며 그 사람의 내적 특성을 모를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따라서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외모에 자기를 맞추려 할 수 있다. Deaux와 Lewis (1984)는 일찍이 고정관념중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이 외모라는 것을 밝힌바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외모는 성 고정관념의 중요한 영역일 뿐 아니라 고정관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아의 영역이며, 고정관념 저 집단도 그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들이 명시적인 검사에서 자신을 고정관념에서 분리시키려고 했을지라도 가장 현저한 특성 영역에서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사람들이 영역에 따라 자신을 동일시하려 하거나 분리하려 하면서 자신을 고정화하는 현상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Pickett, Bonner & Coleman, 2002). 명시적 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바로 이러한 영역 특수적 동일시와 분리현상이 영향을 미쳐 고정관념 고저 집단에 따라 처방적 내용과 외모 영역에 달리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암묵적 검사에서도 영역 특수적 동일시와 분리현상이 반응패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암묵적 자아검사에서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이 반응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오류율에서는 고정관념 저 집단이 일치조건에서 오류가 많았다. 한편 전반적인 변량이 고정관념 고 집단은 낮은 반면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 컸다. 이러한 암묵적 검사의

결과들은 고정관념 고 집단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자아해석을 단일화시켜 변량이 적은데 비해, 고정관념 저 집단은 다양한 방식의 자아표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오류도 높고 변량도 크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연구 1의 명시적 검사에서 나온 영역 특수적 고정관념 적용 양식을 고려해 본다면, 연구 2에서 고정관념 저 집단이 보이는 오류율은 내용에 따라서는 고정관념과 자아를 연결시키지 않는 경향성이 암묵적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자아해석 양식의 차이가 명시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크기는 하지만 영역에 따라 그 차이가 좁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두 집단의 반응시간이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두 집단이 그 영역의 자아표상이나 성 고정관념이 유사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집단 정체성과 관련된 검사에서 고정관념 저 집단은 고정관념 고 집단에 비해 매우 점수가 높았던 점과 처방과 역할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들은 사회가 여성에게 처방하는 고정관념과 역할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여성 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여성의 문제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고정관념 고 집단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형적인 시선으로 여성과 여성적 특성을 연합하고 자신을 사회의 처방적 틀에 맞추어 가고 있다면, 고정관념 저 집단은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암묵적 검사에서 드러난 고저 집단간의 반응시간의 유사성은 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는 반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고정관념이나 자아특성의 내용이 남성 고정관념이나 자아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고정관념 고저 집단을 나누어 그들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양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들 내에서도 고정관념 고저집단간에 명시적인 자아해석이 차이나며, 명시적인 자아와 암묵적인 자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만으로는 남성들의 자아도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는지, 그들은 여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고정관념과 자아해석과 관련된 검사를 통해 남성들도 자아해석에 고정관념의 처방적 내용과 긍정적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역특수적 고정관념의 내용을 바탕으로 암묵적 태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오류율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지경 (2002). 성차별 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단서, 범주전형성 및 성별선호도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49-67.
- 티브리스 (1999).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Aidman, E., & Carroll, S. (2003). Implicit individual differences: Relationships between implicit self-esteem, gender identity, and gender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19-37.

- Ashmore, R., DelBoca, F., & Wohlers, A. (1987). Gender stereotypes. In R. Ashmore & F. DelBoca(Eds.), *The Social Psychology of Female-Male Relations*, 69-120. London, Academic Press.
- Banaji, M., & Greenwald, A.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es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Baumeister, R. (1998). The self. In D. Gilbert, S.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680-740). NY: McGraw Hill.
- Bem, S. (1981). Gender sc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 Biernat, M., & Kobrynowicz, D. (1999). A shifting perspective on the complexity of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stereotyping. In W. Swann, J. Laglois, & L. Gilberts(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75-106), Washington DC, APA.
- Branscombe, N. R. & Wann, D. L. (1994). Collective self-esteem consequences of outgroup derogation when a valued social identity is on tria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641-657.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T. Gilbert, S.T. Fiske, & G. Lindzey(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554-594). NY: McGraw-Hill.
- Chin, M. G. (1995). An evalu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Relating ingroup bias, transitory self-esteem, and mood stat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5, 10-B. (University Microfilms No. AAM9507767)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Y: Charles Scribner and Sons.
- Crosby, F. (1984). The denial of personal discrimin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3), 371-386.
- Deaux, K., & LaFrance, M. (1998). Gender. In D. Gilbert, S.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788-827). NY: McGraw Hill.
- Deaux, K., & Lewis, L. (1983, May 12). Assessment of gender stereotypes: Methodology and components. Purdue University.
- Deaux, K., & Lewis,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 Madinic, A. (1993).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In W. Str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5, 1-35). John Wiley.
- Eckes, T. (1994). Features of men, features of women: Assessing stereotypic beliefs about gender subtyp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07-123.
- Fazio, R., Sanbonmatsu, D., Powell, M., & Kardes, F.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6), 621-62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357-411)*. NY: McGrawHill.
- Fredericson, B., Roberts, T., Noll, S., Quinn, D., & Twenge, J. (1998). The swimsuit becomes you: Sex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retained eating, &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5(1)*, 269-284.
- Glick, P., & Fiske, S. (1999). Gender, power, dynamics, and social interaction. In M. Ferree, J. Lorber, & B. Hess(Eds.), *Revisioning Gender (365-398)*, NY, Sage.
- Glick, P., & Fiske, S. (1999). Sexism and other "isms": In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193-222)*, Washington DC, APA.
- Greenwald, A., Banaji, M., Rudman, L., Farnham, S., Nosek, B., & Mellott, D.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Greenwald, A., & Banaji, M.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 1022-1038.
- Hannover, B. (1999). Development of the self in gendered context. In Eckes & Trautner(Eds.), *The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LEA.
- Hare-Mustin, R. T., & Marecek J. (1988). The meaning of difference: Gender theory, postmodernism, an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3*, 455-464.
- Higgins, E. T. (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bility, and salience.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133-168)*, NY: Guilford Press.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E.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pp.82-173)*. Stanford, CA: Stanford Uni. Press.
- Lee, Y. & Ottani, V. (1995). Perceived in-group homogeneity as a function of group membership salience and stereotype thre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6)*, 610-619.
-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75-287.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1). Social cognition: Categorical person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 239-255.
- Major, B. & Schmader, T. (1998). Coping with stigma through psychological disengagement. In J. K. Swim & C. Stangor(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pp. 219-241)*. NY: Academic Press.
-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 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5-254.
- Nelson, T.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 Bacon.

- Perdue, C., Dovidio, J.F., Gurtman, M.B., & Tyler, R. B.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Pickett, C., Bonner, B., & Coleman, J. (2002). Motivated self-stereotyping: Heightened assimilation and differentiation needs result in increased level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43-562.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64-1178.
- Smith, E. (1993). Social identity and social emotions: Toward new conceptualizations of prejudice. In D. Mackie & D. Hamilton (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pp. 297-315). NY: Academic Press.
- Spears, R., Doosje, B., & Ellemers, N. (1997). Self-stereotyping in the face of threats to group status and distinctiveness: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5), 538-553.
- Spence, J. T. & Buckner, C. E. (2000).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trait stereotypes, and sexist attitud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44-62.
- Spence, J. T. (1993). Women, men, and society: Plus ça change, plus c'est la même chose. In S. Oskamp & M. Costanzo(Eds.), *Gender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pp.3-17). Newbury Park, CA:Sage.
- Storms (1979). Sex role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s to sex role attributes and sex role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779-178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Austin(Eds.),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urner, J. C., & Onorato, R. (1999).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elf-concept: A self-categorization perspective. In T. Tyler, Kramer, & O. John(Eds.). *The psychology of the social self*. Hillsdale, NJ: Erlbaum.

Effects of Gender-stereotype on Explicit and Implicit Self-construals of Korean Women

Hyeja Cho

Hee 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gender-stereotype on women's self-construals. We conducted 2 studies to explore how high or strong gender-stereotypic women and low or weak gender-stereotypic women do construct explicit and implicit self representations differently. Study 1 revealed that high gender-stereotype group explicitly construed self according to gender-stereotype, especially on the domains of role, behavior, personality and appearance, and prescriptive contents, more distinctly than low gender-stereotype group. And both group of women are more sensitive to stereotype of appearance when they construed their selves. Study 2 showed that there's not much difference in IAT RTs of both groups of women. The result can be explained by a hypothesis that gender stereotypes were activated automatically if women were asked to think about their selves on pre-conscious level. But low gender-stereotype group's RT variance and error rates were greater than high group. These findings were taken to show that women's implicit and explicit self-construal patterns might be affected by degrees of women's self-stereotyping and domains of gender stereotypes.

Keywords: self-construal, gender-stereotype,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identification, disidentification.

<부 록>

자아해석 검사(문항 예)

- 나는 상냥해지고 싶다.
- 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싶다.
- 나는 샘이 많은 편이다.
- 나는 의존적인 편이다.
- 나는 세심한 편이다.
- 나는 요리를 잘 하고 싶다.
- 나는 집안일을 잘 하고 싶다.
- 나는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다.
- 나는 언어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 나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편이다.
- 나는 얌전하게 보이고 싶다.
-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
- 나는 알뜰게 행동하는 편이다.
- 나는 얼굴이 예뻐지고 싶다.

